



## Press Contacts

임성연 이사  
한국어도비시스템즈  
(02)530-8094  
[sulim@adobe.com](mailto:sulim@adobe.com)

김희연 과장/서은지 사원  
뉴스커뮤니케이션스  
(02)6323-5061, 010-9171-7737  
(02)6323-5080, 010-3893-3098  
[adobe@newscom.co.kr](mailto:adobe@newscom.co.kr)

# 어도비 비디오 툴, 2016 선댄스 영화제에서 뜨거운 호평

**유니버설 픽처스의 기대작 <헤일 시저!(Hail Caesar!)> 및 20세기 폭스 <데드풀(Deadpool)>, 모두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로 작업**

서울 - 2016년 1월 22일 - 세계 최대 규모와 권위를 자랑하는 독립영화제인 2016 선댄스 영화제가 미국 현지 시간 21일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및 독립 영화 51편의 상영작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Adobe Premiere Pro CC)를 활용해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획기적인 작품과 떠오르는 신예 영화인들을 위한 선댄스 영화제에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를 비롯해 다양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제작된 175개의 작품들이 출품됐다. 프리미어 프로 CC는 <크리스틴, 글리슨(Christine, Gleason)>과 <스위스 아미 맨(Swiss Army Man)>과 같은 장편 영화 부문 경쟁작부터 <리처드 링클레이터 - 드림 이즈 데스티니(Richard Linklater - dream is destiny)>와 같은 다큐멘터리 등의 제작에 폭넓게 활용됐다. 전년 대비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의 사용량은 1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댄스 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되는 <리처드 링클레이터 - 드림 이즈 데스티니>의 루이스 블랙(Louise Black) 공동 감독은 “야심 차게 준비한 이번 작품에서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했다”며 “이번 작품은 수십 년 된 오래된 영상과 현 시점에서 촬영한 인터뷰 영상을 함께 엮어내는데,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를 통한 편집으로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선댄스에 참여하는 영화 제작자들은 어도비의 비디오 워크플로우가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영화 산업 현장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다. 아카데미상을 4차례나 수상한 코엔 형제들(Coen brothers)은 <헤일 시저!(Hail, Caesar!)>로, 팀 밀러(Tim Miller) 감독은 <데드풀(Deadpool)>로 최근 프리미어 프로의 사용자 대열에 합류했다. <나를 찾아줘(Gone Girl)>의 데이비드 핀처(David Fincher) 감독과 아카데미 편집상의 영광을 거머쥔 커크 백스터(Kirk Baxter), 그리고 <스태튼 아일랜드 썸머(Staten Island Summer)>의 리스 토마스(Rhys Thomas) 감독과 론 마이클스(Lorne Michaels) 프로듀서 역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를 선택했다.

### 어도비 편집 패널 토론 주최 - “<헤일 시저!>와<데드풀> 속 편집 기법의 비밀”

어도비는 오는 23일 선댄스 영화제 현장에서 독립 영화 제작자들의 현대적인 비디오 편집 기법 활용을 장려하고자, 올해 2월 개봉 예정인 기대작 ‘<헤일 시저!>와<데드풀> 속 편집 기법의 비밀(Editorial secrets from Hail, Caesar! and Deadpool)’이라는 제목의 편집 패널 토론을 주최한다.

- 유니버설 픽처스의 <헤일 시저!>는 초호화 캐스팅으로 중무장한 코미디 영화다. 1950년대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의 해결사로 나오는 주인공은 한 월드스타가 영화를 촬영하던 도중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러나 그는 곧 납치범들로부터 몸값 요구를 받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해당 작품은 아카데미상을 4번 수상한 조엘 코엔과 에단 코엔이 제작, 감독, 각본, 편집을 맡았다. 영화의 협력 프로듀서인 캐서린 파렐(Catherine Farrell)과 보조 편집자 캐서린 맥쿼리(Katherine McQuerrey)가 패널로 참가한다.

- 20세기 폭스사가 2월 12일에 개봉하는 <데드풀>은 마블 코믹스 역사상 가장 독특한 안티히어로인 '데드풀' 원작에 기반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 용병 웨이드 윌슨(Wade Wilson)은 암 치료를 위한 비밀 실험에 참여한 후 강력한 재생능력과 함께 비틀린 유머감각을 지닌 슈퍼히어로 데드풀로 거듭나고 그의 삶을 무너뜨린 악당들에게 복수를 한다. 팀 밀러 감독, 그리고 편집 컨설턴트 및 워크플로우 스페셜리스트 바시 네도만스키(Vashi Nedomansky)가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패널로 참석하는 영화제작자들은 스토리텔링과 최첨단 워크플로우에 대한 그들의 접근법을 공개하는 한편, 과거 사용하던 아비드 미디어 컴포저(Avid Media Composer)와 애플 파이널 컷 프로(Apple Final Cut Pro)대신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를 선택하게 된 이유 및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패널 토론은 1월 23일, 산악 지대 표준시(Mountain Standard Time, MST) 기준 오후 3:30부터 4:30에 걸쳐 에어비앤비 하우스(Airbnb Haus, 596 Main Street, Park City)에서 진행된다. 당일 현장 참여가 불가할 경우, 다음 주 [www.adobe.com/go/video](http://www.adobe.com/go/video)에서 패널 토론 영상을 확인 할 수 있다.

<데드풀>의 팀 밀러 감독은 “어도비는 프리미어 프로 CC의 기초적인 기능 개선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편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특히, 애프터 이펙트 (After Effect) CC와 같은 타 프로그램과 연동이 가능하고 빠른 컴포지팅(quick composite)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스럽다”며, “아이디어 구상에서부터 실제 결과물 도출까지 끊임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워크플로우가 필요했는데, 깔끔하고 빠른 작업을 지원하는 프리미어 프로 CC가 적격이다”고 말했다.

### 어도비, 영화 제작자의 미래에 투자

어도비는 무한한 창의성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이 이룬 순수하고 대담한 출품작들이 거루는 선댄스 영화제 비경쟁작 NEXT 부문을 공식 후원한다. NEXT 부문의 출품작 중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를 사용해 편집된 작품들에는 <다크 나이트(Dark Night)>, <오퍼레이션 아발란체(Operation Avalanche)>, <더 아이즈 오브 더 마더(The Eyes of the Mother)> 그리고 <더 포스(The 4th)> 등이 있다.

또한, 어도비는 크리에이티브 꿈나무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사의 [프로젝트 1324](#)를 통해 선댄스 인스티튜트(Sundance Institute)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프로젝트 1324](#)와 선댄스 인스티튜트는 18세부터 24세 사이의 영화제작자들을 대상으로 '왓츠 넥스트(“What's Next?”)' 단편 영화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다섯 명의 당선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선댄스 영화제 기간 중 진행되며, 수상자들은 선댄스 인스티튜트의 직원과 졸업생들로부터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선댄스 이그나이트 장학금(Sundance Ignite Fellowship)을 받는다.

###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비디오 툴, 최신 업데이트 공개 임박

아울러 어도비는 선댄스 영화제 직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비디오 툴과 관련된 업데이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1월 말에 공개되는 새로운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 어도비 스톡(Adobe Stock) 비디오 콘텐츠에 100,000개의 4K 고화질 비디오 에셋들이 추가된다. 프리미어 프로 CC와 애프터 이펙트 CC 사용자들은 데스크톱 앱을 통해 어도비 스톡에 수록된 비디오와 이미지들을 검색 및 다운로드, 라이선스 받을 수 있다. 저작권 없는 고품질 이미지와 일러스트들을 모아둔 어도비 스톡은 이미 포토샵 CC, 인디자인 CC, 일러스트레이터 CC와 같은 어도비의 주요 제품군에 이미 통합되어 있다.
- 지난 2014년, 애프터 이펙트 CC에 처음 소개된 시네웨어 라이브 3D 파이프라인(Cineware Live 3D pipeline)은 향상된 워크플로우 및 개선된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이제 시네웨어 이펙트에서 오픈GL(OpenGL) 렌더링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더욱 빨라진 렌더링 옵션을 누릴 수 있다.
- 애프터 이펙트 CC와 시네마 4D(Cinema 4D)의 타임라인을 싱크할 수 있는 라이브 링크(Live Link)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컴포지팅(compositing)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아티스트들은 이제 최신 업데이트인 R17에서 소개된 시네마 4D의 새로운 테이크 시스템(Take System)의 지원을 기반으로, 시네마 4D 프로젝트 파일 내의 특정 테이크(Takes)를 선택적으로 렌더링할 수 있게 된다.

- 프리미어 프로 CC의 성능도 개선된다.

어도비의 빌 로버츠(Bill Roberts) 전문 비디오 제품 관리 시니어 디렉터(senior director of professional video product management)는 “어도비는 선댄스 인스티튜트를 후원하고 매년 획기적인 작품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아티스트들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들의 창의성이야말로 어도비가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첨단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매체, 스크린, 예산 범위에 제한 없이 세상의 모든 스토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돕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 **어도비에 대하여**

어도비는 사용자의 디지털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adobe.com/kr/>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어도비시스템즈에 대한 정보 및 뉴스는 한국어도비시스템즈의 공식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AdobeKorea>)과 공식 트위터(<https://twitter.com/AdobeKorea>)에서 확인 가능하다.

###